

서울교육청, 올해 2학기부터 교과서 단어 중심 한자교육

아시아투데이 2013-06-25 일자 인터넷 신문 발췌(류용환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서 교과서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 한자교육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퇴직교원이나 한문 전공 임용 예정 교원, 민간 자격 소지자, 학부모 등 재능기부자들이 방과 후 희망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 외부 전문가와 본청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한자교육 추진단’을 출범하고 한자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교재 마련 등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시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자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학생·교사·학부모들의 한자교육 수요 및 요구 사항 등도 알아볼 계획이다.

앞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올해 2학기부터 한자교육을 서울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어 이해능력을 높이고 세대 간 언어장벽을 없애려면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문 교육감의 생각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학교장 재량으로 한자교육을 가르치고 중학교는 한문이 선택과목으로 돼 있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한자교육은 국어·수학·과학·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가 중심이 된다.

예컨대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삼각형'(三角形), '정사각형'(正四角形) 등의 단어가 각각 어떤 의미의 한자로 구성돼 있는지 알려주는 식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에 한자어가 많은데 상당수 학생이 기초적인 한자도 모르다 보니 단어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자를 알면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자 교재도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재나 시중에서 파는 한자책 등을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초·중학교 한자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자지도자료나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다만 교과서 어휘 이외에 한자성어나 한문을 가르칠 계획은 없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흥미를 유발하는 차원에서 한자성어를 알려줄 수는 있으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의 국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으므로 교과서 어휘를 벗어나는 수준의 어려운 한자어나 한문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